



보도시점 2024.03.18.(월)

배포 2024.03.18.(월)

월슨 고등학교(Glen A. Wilson High School) 학생들이 한국의 멋과 역사를 배우다

- 한국어반 학생 40명 LA한국교육원에서 체험학습 진행
- 한국화와 전통공예 배우며 한국의 아름다움 체험, 고조선 이래 대한민국 역사도 공부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3월 15일(금) 월슨 고등학교(Glen A. Wilson High School) 한국어반 학생 40명이 교육원을 방문하여 한국화 책갈피와 민화지갑 만들기 체험학습 수업을 하고 한국역사문화체험관에서 고조선 이래 근세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
- 월슨 고등학교(Glen A. Wilson High School)는 2006년 하시엔다 라푸엔테 교육구(Hacienda La Puente Unified School District) 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이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박희주(11학년) 학생은, “한국전통의 아름다움엔 절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화려한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” 고 말하고, “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랑스러운 나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꾸준히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” 며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.
- 아렐리 노나토(Areli Nonato, 11학년) 학생은, “한국전통 예술은 꽃과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다” 고 말하고, “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처음으로 붓과 물감을 접해보았는데, 앞으로 계속 한국화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- 이날 봉사자로 참여한 박승혜 한국어반 학부모는, “학생들이 한국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한국을 가깝게 느끼게 된 것 같다” 고 말하고,

“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- 강전훈 교육원장은, “LA한국교육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한국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” 고 말하고, “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전통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” 고 말했습니다.

붙임 : 사진 4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

사진1: 민화지갑을 완성한 아렐리 노나토 학생



사진2: 민화지갑을 만들고있는 아렐리 노나토 학생



사진3: 민화지갑을 만들고 있는 박희주 학생



사진 4: 민화지갑을 완성한 박희주 학생